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4년 6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27
제3장 국내경제전망	39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47

부록

주요경제통계	53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연구위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 경제
2. 국제금융시장
3. 원자재가격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기부양과 위험요인제거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 시장경제체제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불식

부록 주요경제통계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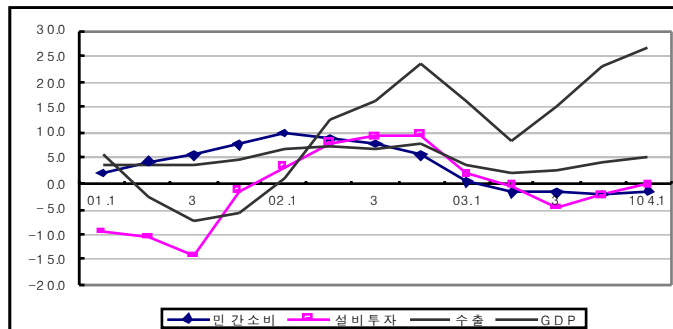
1. 실물부문

수출호조로 종합적인 경기상황은 개선

- 수출증가율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 총수출(물량기준)은 지난 해 2/4분기 8.4%에서 4/4분기에는 24.0%로 급등했으며 올 1/4분기에도 약 30%증가
 - 설비투자도 지난 해 3/4분기를 저점으로 감소 폭이 둔화되는 모습
 - 이에따라 실질GDP 증가율이 지난 해 2/4분기(2.2%)를 저점으로 점차 상승
 - 그러나 민간소비는 '0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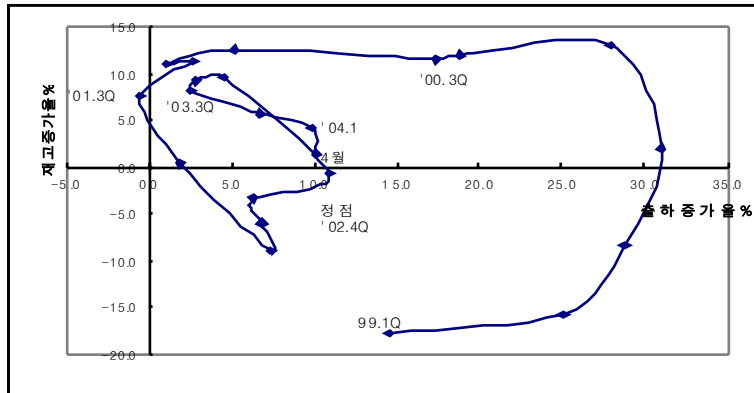
〈그림 1〉 최종수요와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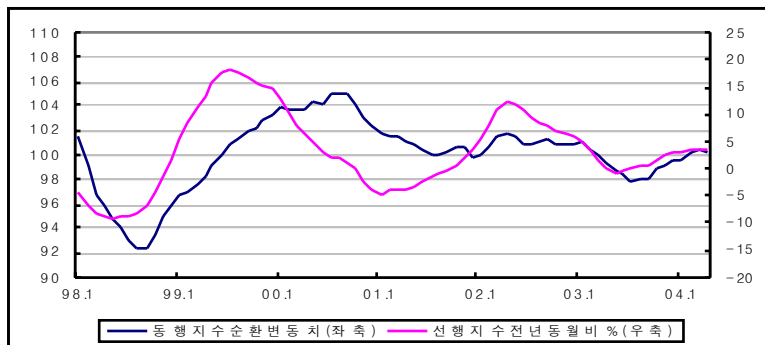
- 출하-재고 순환도 및 경기종합지수 추이로 볼 때에도 현재의 경기는 회복국면의 양상을 보임
 - 지난 해 3/4분기 이후 현재까지의 출하-재고 증가율의 추이는 경기회복기(출하증가율은 상승하고 재고증가율은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출하-재고 순환도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해 8월 이후 상승추세에 있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증가율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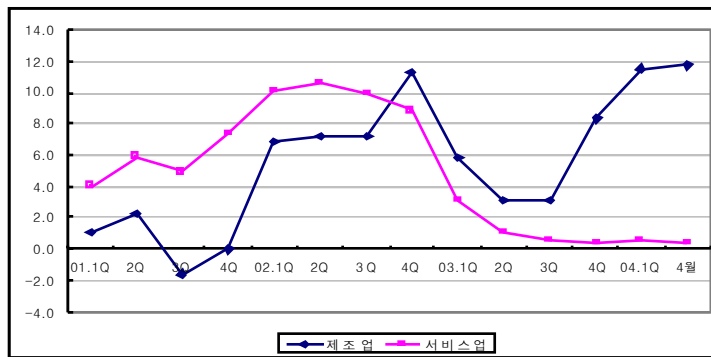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 그러나 수출편중형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생산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 활동은 여전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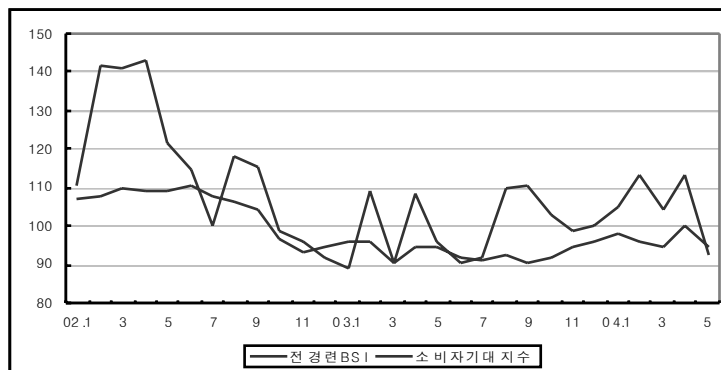
〈그림 4〉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활동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내수부진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도 지연
 - 전경련BSI는 기준치인 100을 전후로 등락 지속
 - 소비자기대지수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

〈그림 5〉 주요 경제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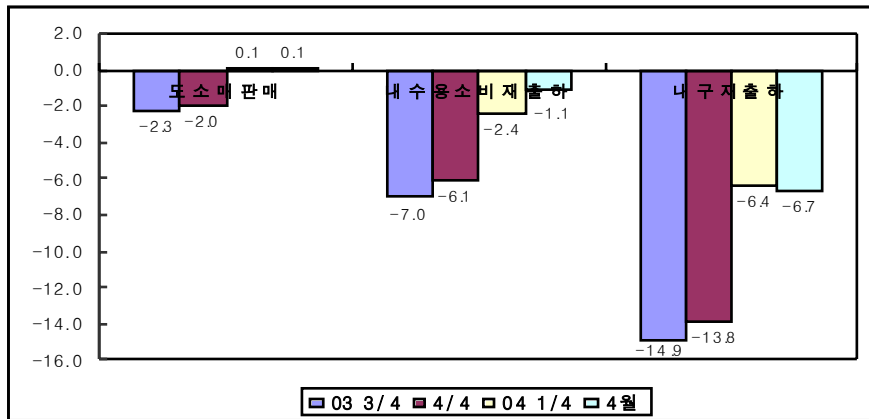
주 :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후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소비부진 지속

- 도소매판매가 소폭 회복되었으나 전반적인 소비회복세로 보기는 미흡
 - 도소매판매액은 1/4분기(0.1%)에 이어 4월중에도 0.1%증가에 그침
 - 내수용소비재출하, 특히 내구재출하 부진이 지속

〈그림 6〉 주요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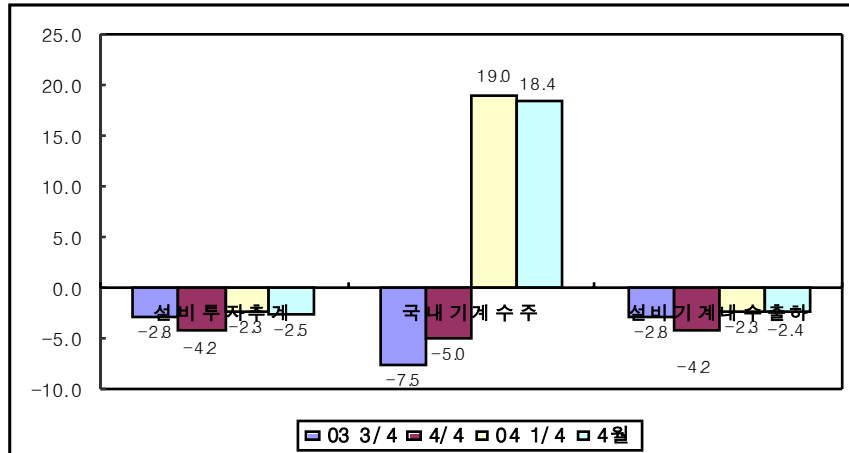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설비투자 부진 완화 조짐

-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은 둔화
 - 설비투자(국민계정) : -0.6%('03 2/4) → -5.0%(3/4) → -2.4%(4/4) → -0.3%('04 1/4)
 - 설비투자추계 : -6.4%('03 3/4) → -5.3%(4/4) → -3.8%('04 1/4) → -2.5%(4월)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증가세를 지속

〈그림 7〉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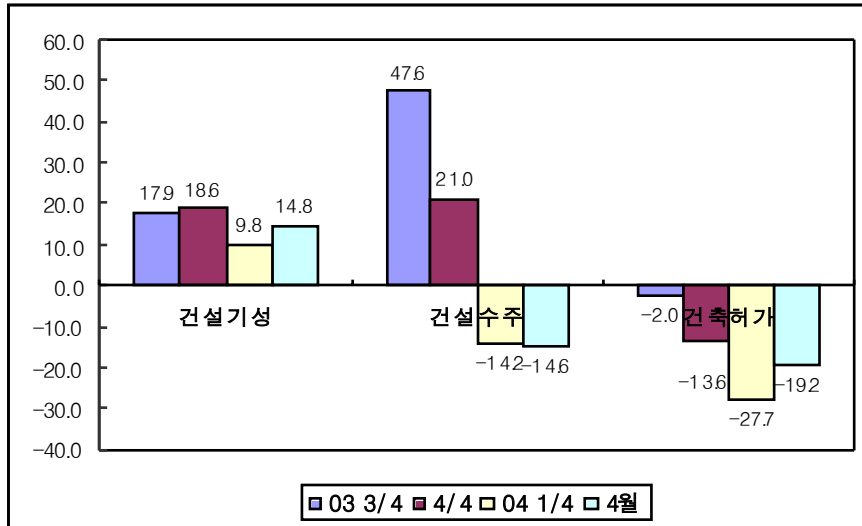
■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올해 들어 둔화

- 건설투자(국민계정) : 7.3%('03 2/4) → 7.9%(3/4) → 7.4%(4/4) → 4.1%('04 1/4)
- 건설기성 : 17.9%('03 3/4) → 18.6%(4/4) → 9.8%('04 1/4) → 14.8%(4월)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가세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건축허가면적의 감소 폭도 확대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

〈그림 8〉 건설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고용사정, 개선추세 주춤

- 4월과 5월 실업률(계절조정)은 각각 3.4%, 3.5%로 1/4분기(3.3%)보다 0.1~0.2%p 상승
 - 실업자수(계절조정)도 1월 779천명에서 5월에는 823천명으로 지속적 증가
- 4~5월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0%로 1/4분기 2.2%보다 하락

〈표 1〉 고용관련 지표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4월	5월
15세이상인구(천명)	37,124	37,226	37,330	37,418	37,506	37,608	37,639	37,670
경제활동인구(천명)	22,754	22,644	23,138	23,081	22,922	23,249	23,482	23,527
취업자(천명)	22,052	21,837	22,383	22,301	22,096	22,371	22,673	22,738
(전년동월비,%)	2.0	0.3	-0.6	-0.8	0.2	2.4	2.3	1.6
실업자(계절조정,천명)	692	730	800	799	806	794	802	823
실업률(계절조정,%)	3.0	3.2	3.5	3.5	3.5	3.4	3.4	3.5
<15~29세>	7.0	8.1	7.4	6.6	8.6	8.8	7.6	7.7

2. 대외거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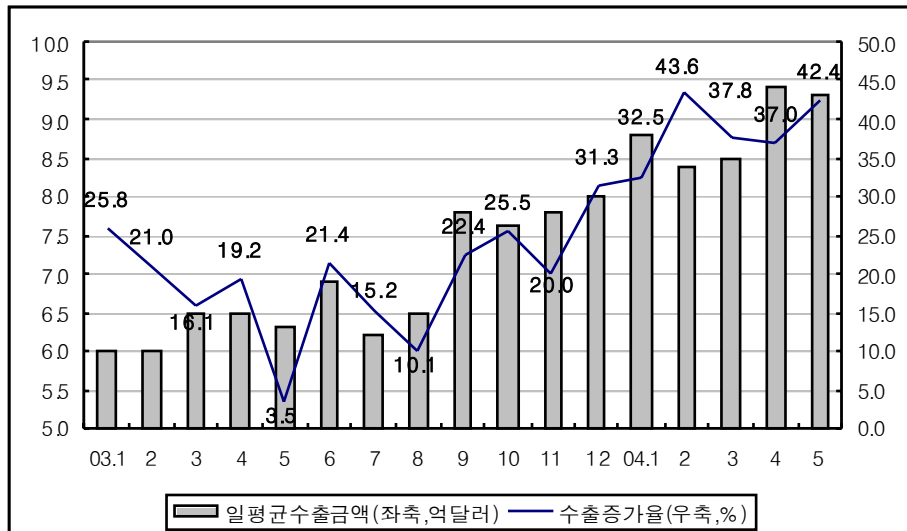
높은 수출증가세 지속

■ 2/4분기중에도 수출의 높은 신장세 지속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25.6%('03 4/4) → 37.8%('04 1/4) → 39.6%(4~5월)
- 일평균수출액 : 7.8억달러('03 4/4) → 8.6억달러('04 1/4) → 9.3억달러(4~5월)

〈그림 9〉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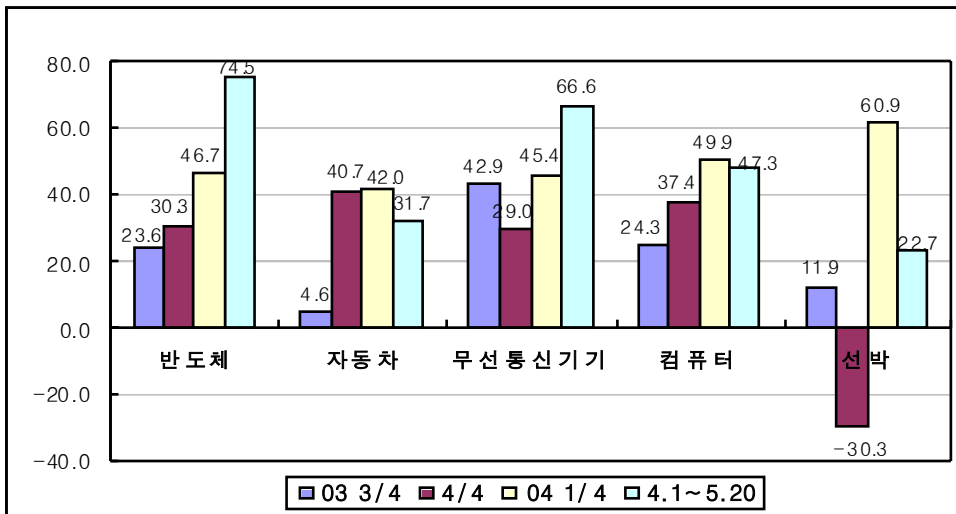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품목별('04 4~5월)로는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컴퓨터와 자동차의 수출호조 지속

- 무선통신기기는 미국, EU를 중심으로 3세대 단말기(초고속 인터넷과 영상통신이 가능) 수요확대로, 컴퓨터는 LCD모니터와 컴퓨터 부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반도체는 D램 가격 상승과 디지털 가전수요 확대로 높은 증가세
- 자동차는 내수위축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과 수출차종의 고가화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미국, EU와 함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대

〈그림 10〉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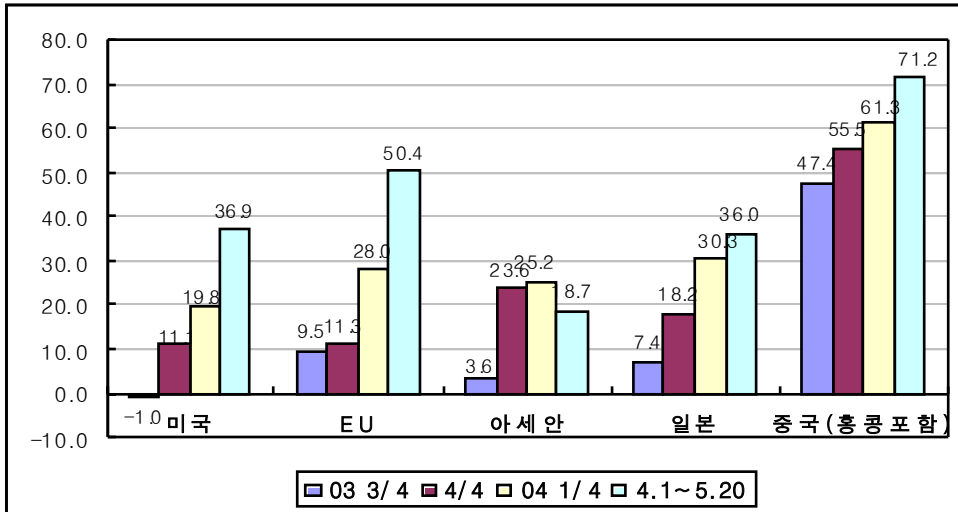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지역별('04년 1/4분기)로는 중국(홍콩포함)에 대한 수출이 급증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도 모두 호조

〈그림 11〉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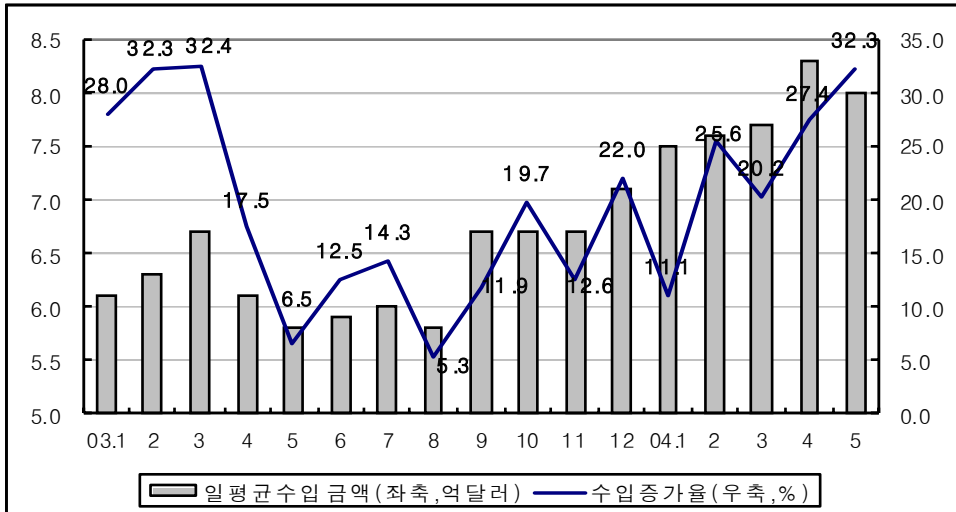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수입증가율 상승

- 수출증가세 확대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도 상승세
 - 수입증가율은 1/4분기 23.2%(전년동기비)에서 4~5월중에는 29.9%로 상승
 - 일평균수입액도 올 1월 이후 3개월 연속 7.5억달러를 상회한 이후 4~5월중에는 8억달러대로 상승

〈그림 12〉 수입증가율과 일평균수입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자원부

- 용도별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수입 증가율이 급등했으며 소비재수입은 내수부진으로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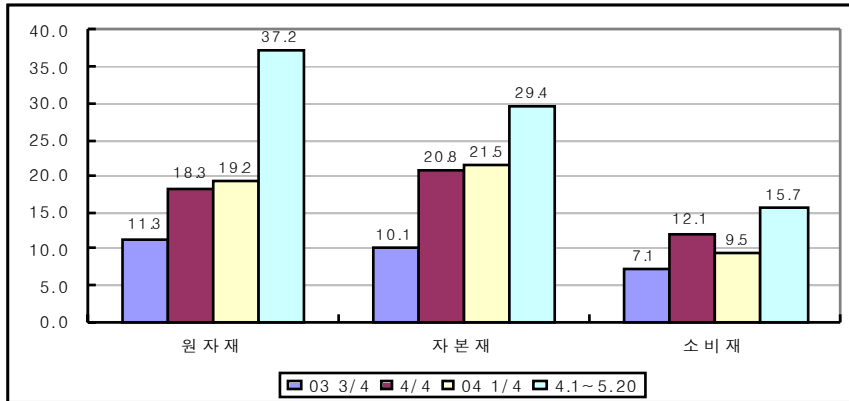
※ 원자재수입비중 : 50.1%('03년) → 51.9%('04년 1/4) → 52.3%('04 4.1~5.20)

자본재수입비중 : 37.4%('03년) → 36.8%('04년 1/4) → 36.2%('04 4.1~5.20)

소비재수입비중 : 11.8%('03년) → 10.3%('04년 1/4) → 10.6%('04 4.1~5.20)

〈그림 13〉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1~4월 중에만 73억달러 흑자

- 경상수지는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년 1~4월 중 7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 1~4월 중 상품수지는 119.8억달러 흑자를 보였으며 서비스수지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6억달러 적자)보다 소폭 개선된 23.4억달러 적자 시현

〈표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2003년				2004년		
	1/4	4월	1~4월	연간	1/4	4월	1~4월
경 상 수 지	-15.2	-2.6	-17.8	123.2	61.5	12.0	73.4
상 품 수 지	12.4	13.6	26.0	221.6	86.1	33.8	119.8
서 비 스 수 지	-23.0	-3.1	-26.0	-76.1	-18.8	-4.5	-23.4
소 득 수 지	2.5	-12.2	-9.6	6.0	2.3	-14.4	-12.2
경상이전수지	-7.2	-0.9	-8.2	-28.2	-8.0	-2.8	-10.8

3. 물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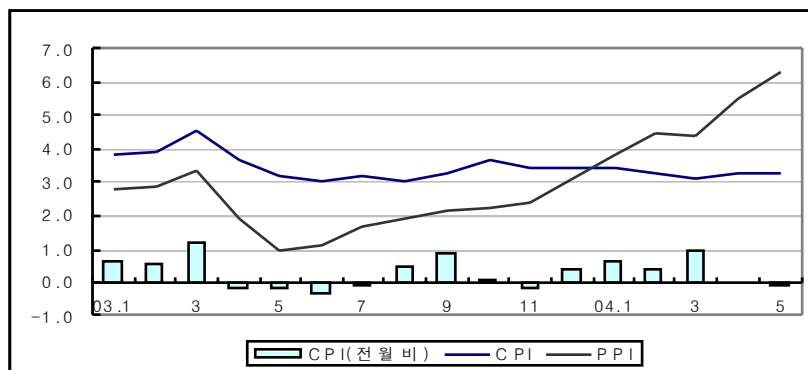
생산자물가는 상승, 소비자물가의 증가율은 정체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의 오름세는 확대되었으나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으로 증가세가 정체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생산자물가는 오름세가 크게 확대
 - 소비자물가는 4~5월중 농산물 출하증가로 농산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4분기 증가율(3.3%)과 같은 3.3%증가율을 보임. 전월비 증가율은 지난 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4~5월중에는 소폭 하락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및석유류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상승세 둔화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8%('04 1/4) → 2.7%(4월) → 2.7%(5월)

〈그림 14〉 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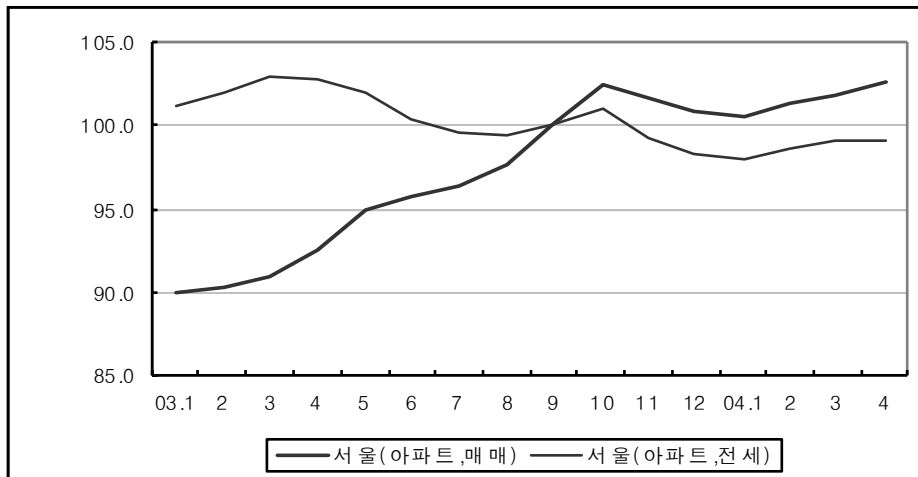


■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은 하락세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이 종료되면서 둔화

〈그림 15〉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서울지역)

단위 : '03.09=100.0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 통화 · 금융부문

작년말부터 5%대 총유동성 증가세 유지

- 내수부진으로 인해 통화수요압력이 적어 전반적인 유동성은 원활한 상황
 - M3 증가율은 재정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금년 1월을 저점으로 매우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5월중에는 5%대 후반으로 추정
 - (신)M1과 (신)M2 증가율도 금년 1/4분기에 비해 소폭의 상승세 유지

〈표 3〉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1월	2월	3월			
(신)M1	18.0	22.5	10.3	5.5	6.6	5.4	6.9	7.3	6.0	7.5	8.3	9.9	9후반
(신)M2	6.9	11.5	13.1	9.1	6.5	3.3	7.9	2.6	2.4	2.6	2.7	3.1	3후반
MB	9.6	12.9	12.4	9.6	8.0	5.4	8.8	5.1	4.9	5.1	5.3	5.4p	5후반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향후 경기불투명으로 장기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 작년 10월 초순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던 장기시장금리는 금년 1월말부터 완만한 하락세 지속

- 최근의 장기사장금리 하락요인은 이른바 해외3대약재(고유가 지속, 중국긴축정책, 미국금리인상 가능성 등)로 인한 향후 경기불투명, 자금수요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내수경기회복 지연 등에 기인

〈표 4〉 주요 금리 추이

단위: 말일, 연리 %p

	2001	2002	2003				2004					
	12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6
콜(익일)(A)	4.00	4.52	4.25	4.09	3.75	3.95	3.77	3.77	3.74	3.76	3.76	3.77
CD(91일)	4.86	4.90	4.7	4.30	3.89	4.36	4.19	4.00	3.90	3.90	3.89	3.90
CP(91일)	5.07	5.03	5.27	4.67	4.11	4.55	4.48	4.26	4.12	4.13	4.04	4.02
국고채(3년)(B)	5.91	5.11	4.62	4.16	4.11	4.82	4.94	4.78	4.50	4.43	4.24	4.28
회사채(3년)(C)	7.04	5.68	5.38	5.45	5.05	5.58	5.74	5.56	5.30	5.14	4.91	4.90
B-A(%p)	1.91	0.59	0.37	0.07	0.36	0.87	1.17	1.01	0.76	0.67	0.48	0.51
C-A(%p)	3.04	1.16	1.13	1.36	1.30	1.63	1.97	1.79	1.56	1.38	1.15	1.13
C-B(%p)	1.13	0.57	0.76	1.29	0.94	0.76	0.80	0.78	0.80	0.71	0.67	0.62

자료 :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 (www.bok.or.kr)

자금수요 저조로 전반적인 기업자금조달은 원활

-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은 CP순상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순발행 등으로 자금수요가 적은 가운데 대체로 원활한 상황
 - 5월중 중소기업 은행대출의 증가세가 신용위험 등으로 둔화되고 대기업 은행대출은 감소세를 시현하여 은행대출의 증가폭 축소

〈표 5〉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조원

	2002년	2003년						2004년			
		연중	1/4	2/4	5월	3/4	4/4	1/4	3월	4월	5월
은행대출**	37.2	32.1	16.4	11.0	3.8	7.4	-2.7	8.8	0.5	2.5	1.3
(대기업)	0.1	-2.9	1.8	-1.0	-1.1	0.1	-3.8	1.7	-0.5	-0.2	-0.3
(중소기업)	37.1	35.0	14.7	11.9	4.9	7.3	1.1	7.1	1.1	2.7	1.6
회사채순발행	-8.1	-4.0	-1.0	-1.0	-0.4	-3.1	1.2	-1.7	0.6	0.4	0.6
CP순발행***	-4.4	-2.0	2.5	-3.7	-1.3	3.1	-3.9	2.3	-1.2	-0.2	-1.7
주식발행	3.9	2.8	0.6	0.4	0.1	0.8	1.1	0.5	0.2	0.1	0.2
계	28.7	28.9	18.4	6.6	2.2	8.2	-4.4	9.9	0.1	2.8	0.3

주 : * 금융기관 제외, ** 신탁계정 포함, *** 증권사 및 은행증권 중금계정(우리은행 중금계정 제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미약한 가운데, 회사채는 장기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으로 3월부터 순발행으로 전환

과중한 가계부채 지속

- 금년 3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450조원을 돌파했고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3천만원에 육박하여 과중한 가계부채 지속
- 금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작년 동월말 439조원에 비해 불과 2.5%(11.1조원) 증가한 450.5조원에 머물렀고 가구당 가계부채도 2,926만원으로 2002년말에 비해 30만원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 지속
- 그러나 금년에도 취업자수 증가 부진, 저금리기조 지속, 부동산시장 안정, 증시 부진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가계부채 금액은 매우 높은 수준

전망과 정책과제

-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425조6,885억원을 나타낸 반면에, 판매신용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1.8% 감소한 24조7,667억원 시현
 - 예금은행대출은 가계대출 억제조치,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농·수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은 증가 추세
 -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일련의 자산건전성 감독강화 등에 따라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이 감소세 지속
 - 최근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협동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향 반영

〈표 6〉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 10억원, %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2004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가계신용잔액(A+B)	341,673.2 (28.0) <74,774.3>	439,059.8 (28.5) <97,386.6>	439,339.3 (19.3) <279.5>	439,086.8 (10.5) <-252.5>	439,948.1 (3.7) <861.3>	447,567.5 (1.9) <7,619.4>	450,455.2 (2.5) <2,887.7>
가계대출잔액(A)	303,519.3 (25.9) <62,450.5>	391,119.3 (28.9) <87,600.0>	396,753.5 (20.7) <5,634.1>	402,565.6 (13.6) <5,812.2>	409,557.5 (7.8) <6,991.9>	420,938.3 (7.6) <11,380.7>	425,688.5 (7.3) <4,750.2>
예금은행	156,712.4 (46.1) <49,477.2>	222,016.5 (41.7) <65,304.1>	227,048.1 (30.1) <5,031.6>	236,702.3 (22.9) <9,654.2>	245,551.8 (17.0) <8,849.4>	253,756.9 (14.3) <8,205.2>	258,965.0 (14.1) <5,208.1>
신용협동기구 ¹⁾	40,028.1	45,727.0	48,007.3	51,468.7	56,374.5	58,929.4	60,280.6
여신전문기관	43,650.7	57,106.3	54,588.5	46,217.4	39,379.8	37,324.1	34,806.2
판매신용잔액(B)	38,153.9 (47.7) <12,323.8>	47,940.5 (25.7) <9,786.6>	42,585.9 (8.3) <-5,354.6>	36,521.2 (-15.2) <-6,064.7>	30,390.5 (-31.4) <-6,130.6>	26,629.2 (-44.5) <-3,761.3>	24,766.7 (-41.8) <-1,862.5>
가구당가계신용잔액 ²⁾ (만원)	2,303	2,915	2,916	2,915	2,921	2,926	2,945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주 :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가구수는 통계청의 “추계가구” 통계를 이용

3)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분기중 증감액

신용불량자 증가세 둔화 및 배드뱅크 출범

- 4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82만5천명으로 지난 2월말과 같은 수준
 - 신용불량자의 규모는 전 국민(2003년 추계, 4,792.5만명)의 8.0%,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2004년 2월, 2,290.6만명)의 16.7% 수준
 -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소득감소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확연하게 완화되기 어렵고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조치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에 대규모의 신용불량자가 지속하고 있는 추세
 - 4월말 현재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260.4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68.1%를 차지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 2003년중 발생한 신용불량자 108만명 중에 90만명이 신용카드 연체도 수반

〈표 7〉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만명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04년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전체 신용불량자	245	264	372	377	383	377	383
신용카드관련	104(43%)	150(57%)	240(64%)	245(65%)	251(66%)	259(69%)	260(68%)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2004년 4월말 현재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

- 한편, 최근의 30대 여성 신용불량자 급증은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생계를 위해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용불량가족' 양산 추세를 반영
- ※ 30대 여성 신용불량자(천명): 336('03.6월) → 427(12월) → 458('04.3월) → 467(4월)
- 4월말 현재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73.5만명(19.2%)과 119.5만명(31.2%)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 차지

- 5월 20일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이 출범하여 6월 10일 현재 14영업일 간 총 7만3천명의 신청을 접수했고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 이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
 - 현재 신용불량자 해소의 기본방향은 채무변제능력 유무,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수, 채무금액 수준 등에 따라 파산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 공동추심프로그램, 배드뱅크 프로그램, 단일금융기관 프로그램,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9월 시행 예정) 등으로 나누어 해결
 - 우선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파산제도를 이용하고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개별금융기관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해소
 - 다중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공동추심프로그램,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에서 대상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해결 모색
 - 대규모의 신용불량자 해소라는 시급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배드뱅크가 도덕적 해이를 유도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카드사 적자폭 감소 및 연체율 하락

- 작년 자산건전성 및 영업실적 악화가 심화되었던 신용카드사의 경영사정이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금년 들어 개선
 - 작년 4/4분기 4조8,787억원이었던 신용카드 전업 6개사의 당기순손실이 금년 1/4분기에는 931억원으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

〈표 8〉 신용카드사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

	'03.1분기	'03.2분기	'03.3분기	'03.4분기	'04.1분기
비씨	56	11	19	△74	47
LG	△3,845	△3,623	△2,699	△45,820	1,211
삼성	△1,868	△4,560	△3,903	△2,657	△2,067
외환	△692	△2,081	△1,332	△10,199	
현대	△2,215	△3,239	△648	△114	△113
롯데	△310	△389	△167	△287	43
우리	△302	△3,796	△4,799	△4,308	
신한	△342	△395	△327	165	△52
합계 (6사기준)	△9,519 (△8,524)	△18,073 (△12,196)	△13,857 (△7,725)	△63,293 (△48,787)	△931

자료 : 금융감독원, 2004년 1/4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 최근 2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던 카드사 연체율이 금년 2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지속
 - ※ 연체율 추이 : 5.96% ('02년말) → 14.05% ('03년말) → 15.16% ('04년 1월말) → 15.39% (2월말) → 11.98% (3월말) → 11.91% (4월말)
-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하락은 내수침체 지속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실적 감소, 신규회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대출서비스에 비해 손실률이 적은 신용판매의 영업비중 증가 등에 기인
 - ※ 신용카드 이용실적(조원) : 117.6('03년3분기) → 109.6(4분기) → 94.6('04년1분기)
 - ※ 신용카드 발급실적(만매) : 10,480('02년말) → 9,522('03년말) → 8,980('04년3월말)
 - ※ 신용판매 금액비중(%) : 45.4('03년3분기) → 52.0(4분기) → 58.2('04년1분기)

〈표 9〉 신용카드사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03.3말	'03.6말	'03.9말	'03.12말	'04.3말
비씨	11.64	7.75	6.09	8.78	9.09
LG	9.20	9.96	10.65	17.90	15.16
삼성	8.79	8.19	9.65	10.59	10.67
외환	11.86	9.68	8.08	12.19	/
현대	17.27	9.48	9.42	8.05	6.89
롯데	23.70	9.98	9.97	3.56	1.70
우리	6.18	14.21	26.42	22.32	/
신한	7.06	7.31	7.93	6.15	6.47
계 (6사기준)	9.45 (9.47)	9.56 (9.10)	11.23 (10.04)	14.05 (13.60)	11.98

자료 : 금융감독원, 2004년 1/4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원화가치의 완만한 상승 추세

- 미국 정책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 제기, 수출호조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의지 표명 등으로 원/달러환율이 4월 다소 상승하기도 했으나,
 - 수출호조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환율이 6월 17일 현재 전년말 대비 2.96% 절상된 1,157.3원 기록

〈표 10〉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원, %

	02년말	03년말	04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7일
원/달러환율	1,186.20	1,192.60	1,173.70	1,176.20	1,146.60	1,173.30	1,160.10	1,157.30
(전년말 대비)	-9.69	0.54	-1.58	-1.38	-3.86	-1.62	-2.73	-2.96

주 : 말일, 종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DB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 경제

미국 : 강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4%대 성장 전망

-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 확대
 - 지난 해 4/4분기 4.1%(전기대비연율) 성장한 미국경제가 올 1/4분기에도 소비의 회복세 및 설비투자의 호조세에 힘입어 4.4%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산업생산은 4월 0.8%(전월대비) 상승한데 이어 5월중에도 6년만에 최대인 1.1% 상승
 - 경기선행지수는 꾸준히 상승. 지난 1년간 경기선행지수가 약 5%나 오르면서 20년만에 최대상승폭을 기록
 - 소비자신뢰지수는 휘발유 가격 상승, 이라크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개선 등의 영향으로 4월에 이어 5월에도 상승세 지속
 - ISM제조업지수는 신규주문의 확대로 5월중 62.8을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기준치(50)을 상회하였고, ISM비제조업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
 - 실업률은 10월이후 하락하여 올해에는 5.6~5.7%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실업수당 청

구자수도 고용안전 기준치인 40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

- 소비자물가는 1/4분기 1.8%(전년동기비), 4월 2.3%, 5월 3.1% 상승하며 오름세가 확대

〈표 1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만명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GDP성장률 ¹⁾	2.2	2.0 (2.1)	3.1 (2.4)	8.2 (3.6)	4.1 (4.3)	3.1	4.4 (5.0)		
개인소비 ¹⁾	3.4	2.5	3.3	6.9	3.2	3.1	3.9		
민간설비투자 ¹⁾	-2.8	0.5	8.0	17.6	14.9	5.5	9.8		
수출 ¹⁾	-2.4	-2.0	-1.1	9.9	20.5	2.0	4.9		
수입 ¹⁾	3.3	-6.8	9.1	0.8	16.4	4.0	5.9		
산업생산	-0.6	0.2	-1.0	0.9	1.3	0.2	1.6	0.8	1.1
제조업가동률	73.9	73.5	72.7	73.2	74.1	73.4	75.0	75.7	76.4
소매판매액	3.7	1.5	1.3	2.8	0.9	5.6	2.3	-0.6	1.2
CPI상승률 ²⁾	1.6	2.2	2.2	2.2	1.9	2.3	1.8	2.3	3.1
경기선행지수 ³⁾	110.9	110.7	111.4	113.1	114.2	112.3	115.2	115.9	116.5
실업률(%)	5.8	5.8	6.1	6.1	5.9	6.0	5.6	5.6	5.6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	40.4	40.5	43.3	40.5	36.8	40.3	34.6	34.0	34.1
소비자신뢰지수 ⁴⁾	96.6	68.9	82.7	78.6	88.6	79.6	91.1	93.0	93.2
ISM제조업지수 ⁵⁾ (기준치=50)	52.4 (55.1)	49.7 (52.5)	48.9 (56.4)	54.1 (63.2)	60.6 (60.3)	53.3 (58.1)	62.5 (64.1)	62.4 (68.4)	62.8 (65.2)

주 : 1) 전기대비연율,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Conference Board(1996=100)

4) Conference Board(1985=100) 5) 괄호안은 비제조업 지수임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관리협회(ISM)

- 2004년 성장률은 4%대로 높아질 전망
 - 개인소비지출이 조세환급 등에 따른 부의 효과와 고용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IT관련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설비투자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은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과 쌍둥이 적자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낮음
 - IMF와 OECD는 200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4.6%와 4.7%로 전망

일본 : 건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3%대 성장 전망

- 수출호조에 힘입어 건조한 경기회복국면을 이어가고 있음
 - 수출호조(전기대비 3.9%)와 설비투자 증가(전기대비 2.4%)에 힘입어 1/4분기 GDP가 전기대비 1.4% 상승하여 8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를 기록
 - 4월 광공업생산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8.7%로 상승
 - 실업률은 3~4월중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2001년 3월 이후 최저수준
 - 그러나 소매판매가 3월과 4월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소비자물가의 하락추세도 지속되고 있음

〈표 1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실질GDP성장률 ¹⁾	-0.3	0.2 (2.7)	0.8 (2.2)	0.8 (2.0)	1.7 (3.2)	2.5	1.4 (5.4)				
민간소비	0.9	-0.1	0.3	0.7	1.1	0.9	1.0				
민간설비투자	-7.2	2.0	4.8	0.1	6.9	9.3	2.4				
수출	8.0	0.7	1.8	3.5	5.1	10.1	3.9				
광공업생산 ²⁾	-1.3	5.3	2.2	0.8	4.1	3.2	6.8	5.3	6.7	8.3	8.7
소매판매액 ²⁾	-3.9	-1.3	-2.6	-2.3	-1.2	-1.8	0.0	0.9	1.8	-1.7	-1.0
민간기계수주 ²⁾	-12.0	10.6	9.5	6.3	13.8	10.7	2.2	-3.0	9.3	0.2	16.9
실업률	5.4	5.4	5.4	5.2	5.1	5.3	5.0	5.0	5.0	4.7	4.7
소비자물가 ²⁾	-0.9	-0.2	-0.2	-0.2	-0.3	-0.3	-0.1	-0.3	0.0	-0.1	-0.4

주 : 1) 괄호안은 전년동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 불투명한 내수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연간 3.0% 성장이 전망됨

- 실업률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지가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내수회복에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전망
- 그러나 미국 등 해외경기 회복에 힘입어 소재 및 부품, 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기업수익 증대와 설비투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약 3.0%로 전망됨
- 다만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 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등이 3% 성장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유로지역 :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연간 1.5%내외의 성장

- 주요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산업생산은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3/4분기 0.6% → 4/4분기 0.8%) 올해 1/4분기중에는 소폭 감소(-0.1%)하였으며 실업률도 1/4분기 8.9%, 4월 9.0%로 높은 수준을 지속함
 - 그러나 1/4분기 GDP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소폭 확대('03 4/4분기 0.4% → '04 1/4분기 0.6%)
 - 4월중에도 소매판매가 전월비 1.3%증가하고 수출이 11.9%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올해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는 꾸준히 상승하여 5월에는 54.7을 기록해 지난 2000년 10월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4~5월중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는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도 지속
 -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

〈표 13〉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유로 지역	GDP성장률 ¹⁾	0.9	0.0 (0.7)	-0.1 (0.1)	0.4 (0.4)	0.4 (0.7)	0.4	0.6 (1.3)		
	산업생산 ²⁾	-0.5	0.1	-0.3	0.6	0.8	0.4	-0.1		
	수출 ³⁾	2.1		-5.9	-2.6	-1.1	-2.7	4.2	11.9	
	소매판매	-0.1	0.0	0.1	-0.1	-0.2	0.2	0.6	1.3	
	실업률	8.4	8.7	8.8	8.8	8.8	8.8	8.9	9.0	
	CPI상승률 ³⁾	2.3	2.3	1.9	2.1	2.1	2.3	1.7	2.0	2.5
	FMI지수 ⁴⁾	49.8	49.3	47.1	49.1	52.0	49.0	52.8	54.0	54.7
경기채감지수 ⁵⁾	94.4	90.6	91.4	94.2	97.8	93.5	98.7	100.2	100.3	
독일	GDP성장률	0.2	-0.2	-0.2	0.2	0.3	-0.1	0.4		
	산업생산 ²⁾	-1.4	0.5	-0.7	-0.1	2.3	0.2	0.5	2.2	
	소매판매	-2.1	0.5	0.0	-1.2	-0.6	-1.0	-0.1	0.6	
	CPI상승률 ³⁾	1.4	1.2	0.9	1.0	1.2	1.1	1.0	1.6	2.1
	실업률	9.8	11.2	10.6	10.6	10.5	10.5	10.3	10.5	10.5
	Ifo경기지수 ⁵⁾	89.5	88.5	89.5	92.5	96.2	91.7	96.4	96.3	96.1
프랑스	GDP성장률	1.2	0.0	-0.4	0.6	0.6	0.5	0.8		
	산업생산 ²⁾	-1.3	0.1	-0.6	0.6	1.2	-0.1	0.3	-0.4	
	소매판매	1.2	1.8	-0.6	0.6	1.2	1.8			
	CPI상승률 ³⁾	1.9	2.4	1.9	2.0	2.2	2.1	1.9	2.1	
	실업률	9.0	9.2	9.3	9.4	9.5	9.5	9.7	9.8	
	Insee지수 ⁶⁾	97	97	92	92	93	95	103	105	104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2) 건설업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기준치=50, 제조업지수 5) 2000=100 6) 1991=100
 자료 : 유로통계청, 독일연방통계청, Ifo 경제연구소, 프랑스통계청 등

- 세계경제여건 호전에 따른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유로경제는 약 1.5%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또한 EU에 신규 가입된 동구국가들이 역내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향후 유로화의 추가절상,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신규 동구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EU경제회복에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

중국 : 하반기 성장률 다소 둔화되며 연간 8%대의 성장 전망

- 올해 들어서도 수출호조와 투자증가가 계속되면서 고성장이 지속
 - 지난 해 연간 9.1%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경제가 올 1/4분기 중에도 전년동기비 9.8% 성장
 - 1~5월중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중국정부의 투자억제 조치의 영향으로 1~4월(42.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매판매는 국내 소득수준의 상승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1/4분기 10.7%, 4~5월 15.3%)
 - 올들어 4개월간 지속돼온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5월에 흑자로 전환
 - 한편 소비자물가지수가 18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5월중에는 상승률이 4%대로 급등하면서 경기과열에 대한 논란이 재연

〈표 1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GDP성장률	8.0	9.1	6.7	9.6	9.9	9.1	9.8		
산업생산	12.6	17.2	15.2	16.6	17.7	16.7	17.7	19.1	17.5
소매판매	8.8	9.2	6.8	9.7	10.3	9.0	10.7	13.2	17.8
고정자산투자 ¹⁾	17.4	31.6	32.8	31.4	28.4	28.4	47.8	42.8	34.8
CPI상승률	-0.8	0.5	0.7	0.8	2.7	1.2	2.8	3.8	4.4
M2상승률	16.8	18.5	20.8	20.7	19.6	19.6	19.0	19.1	17.5
수출(억달러) 증가율	3256 (22.1)	864 (33.5)	1039 (34.3)	1174 (29.7)	1308 (40.5)	4358 (34.7)	1158 (33.9)	471 (32.4)	449 (32.8)
수입(억달러) 증가율	2953 (21.2)	874 (52.6)	985 (40.5)	1128 (30.8)	1144 (35.3)	4131 (33.2)	1241 (42.0)	494 (42.9)	428 (35.4)

주 : 1) 누계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의 과열억제 노력으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높은 증가율의 영향으로 연간 8%대의 성장률은 무난할 전망
 - 새로운 성장주기 진입, 기업의 활력유지,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대외환경의 호전으로 두 자리수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올림픽과 연관된 인프라 투자, 서부대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 우려가 점증하면서 중국의 과열 억제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급격한 경기둔화가 가져 올 실업률 및 부실채권 증가 등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과도한 과열 억제조치는 가능성이 낮음

2. 국제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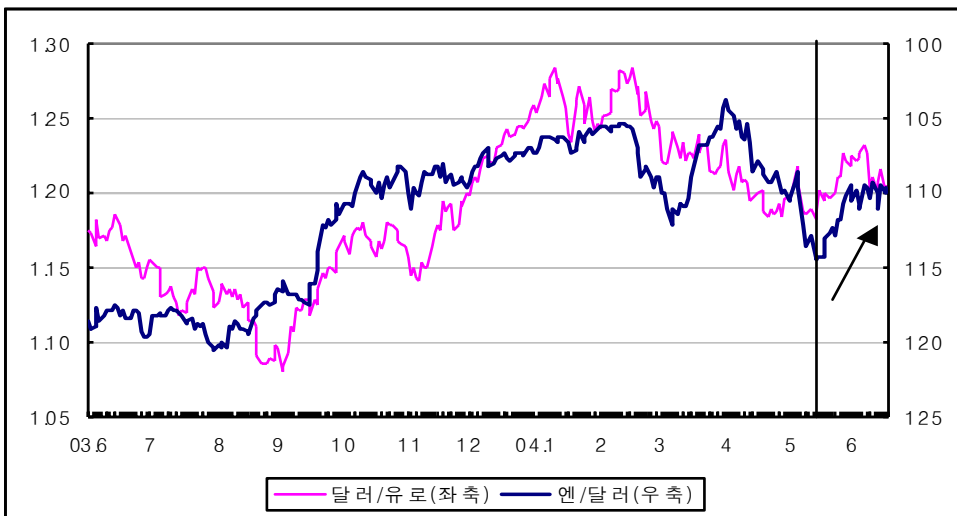
환율 : 달러약세 기조 지속 전망

- 미국 달러화는 5월 중순이후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지정학적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약세로 전환
 - 올 3월까지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
 - 3월말 이후 5월 중반경까지는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세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엔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
 - 이후 유로지역 및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 확산, 미 본토에 대한 대형테러 가능성 등으로 약세 전환

- 달러화 약세기조 지속 전망
 - 미국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약세의 근본원인으로 잠재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등도 단기적인 달러화의 하락요인이 될 전망
 - * 2004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에 이르는 5,800억달러, 재정적자 GDP의 4%에 이르는 4,750억달러 전망
 - 또한 국제사회와 미국이 암묵적으로 약한 달러를 용인하고 있는 점과 향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달러약세에 일조할 가능성

-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으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청산과 같은 국제자본의 POSITION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은 상존

〈그림 16〉 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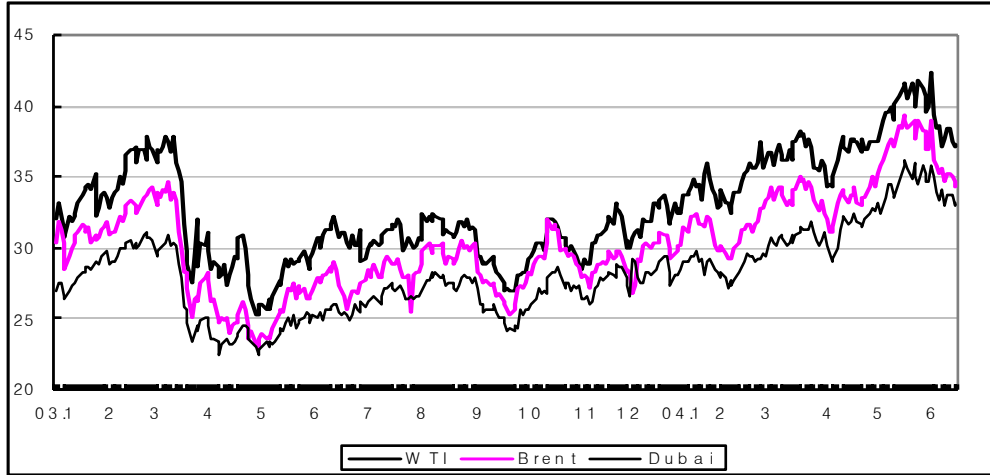
3. 원자재가격 : 국제유가

국제유가 : 수급불안 우려로 단기적으로 고유가 지속

- 수급불안으로 작년 9월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5월중 배럴당 40\$(WTI기준)를 상회하던 국제유가가 6월 들어 하락
 - 미국 원유재고 부족,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그리고 중동지역에서의 긴장고조 및 테러위험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는 지난 해 이후 급등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테러 발생 영향으로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42.33달러(6월1일)를 기록,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원유선물이 거래(1983년)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OPEC이 산유량을 7월1일부터 200만bpd 증산하기로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6월 2일 이후 다시 하락
- OPEC의 증산결정으로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보다는 하락할 전망이나 고유가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
 - OPEC이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증산을 약속하는 등 고유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증대와 함께 중동지역의 긴장고조와 테러위협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OPEC의 증산결정이 고유가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그림 17〉 국제 원유가격 추이

단위 : \$/배럴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하반기 성장률 둔화 전망

- 수출급등세에 힘입어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5.4%에 이르렀으나 하반기중에는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회복세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지면서 연간 성장률은 5.0%에 그칠 전망
 - 수출은 중국의 긴축정책, 원화가치 상승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높아진 수출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는 최근의 소비지표의 부진과 그 원인인 고용불안 및 과중한 가계부채 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중에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증가세,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압력증가, 제조업분야 기업들의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증대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강화와 자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중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이에따라 내수의 주요항목인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연간 증가율을 각각 0.6%, 2.2%, 0.1% (4월 전망치 : 2.2%, 5.0%, 1.5%)로 하향 조정함
- 전망의 전체적인 모습을 최종수요항목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지난(2004년 4월)전망에 비해 순수출 기여도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부문(소비+투자)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지난 전망에서는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올해 예상성장률 5%에 반반씩 기여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내수와 순수출 기여도가 0.9%p와 4.1%p로 크게 변동

〈표 15〉 총수요 주요항목의 GDP성장 기여도 (%p)

년도	민간소비	투자		수출	수입	순수출	GDP	
		설비	건설					
2002	4.3	0.8	0.9	5.1	-5.3	-0.2	7.0	
2003	-0.8	-0.2	1.3	6.4	-3.6	2.8	3.1	
2004	4월 전망	1.0	0.5	0.3	8.3	-5.7	2.5	5.0
	6월 전망	0.3	0.2	0.0	10.0	5.9	4.1	5.0

주 : 2002, 2003년 실제치, 2004년 본원 전망치

전망의 위험요인들

- 먼저 해외요인으로는 유가 불안과 중국경제 긴축이 여전히 중요한 잠재 약제임.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은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먼저 고유가의 경우

- 그 동안 진행된 고유가는 벌써 국내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업 채산성악화 및 가계 가처분소득 하락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최근 급등세가 일단락된 것 같으나 중동지역 불안 요인이 현재화되면 유가불안이 재현 될 가능성이 상존

중국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첫째, 경기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감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벌써 자동차 판매 등 부분적으로 긴축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긴축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둘째,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경과 평가절상 가능성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특히 대중 무역역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은 지속적인 이슈로 남아있음. 조정 폭이 클수록 원화 환율 절상 압력은 커질 것임
- 국내요인으로는 고용사정 개선 부진, 노사문제 악화, 규제완화 지연 등의 기업경영환경 개선 부진, 반기업정서 악화, 부유세논란 본격화 등을 들 수 있음
- 고용사정, 노사문제, 부유세논란 등은 소비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 노사문제 및 나머지 요인들은 투자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현존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정부고위당국자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

2. 물가부문

수입물가 불안의 여파로 물가상승세 3%대 중반 넘을 전망

-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과 그동안 높게 유지되었던 원화 환율의 영향이 국내물가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약 3.6% 상승 전망
- 수입물가는 4월과 5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8.2%, 14.6%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자물가도 4월과 5월에 5.5%와 6.3% 증가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증가를 예견케 하고 있음
- 하지만 완만한 내수회복세, 원화환율 절상,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이 예상되어 물가 급등의 가능성은 적음

3. 대외거래부문

수출호조세 지속으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상회할 전망

-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반기중 경상수지 흑자규모(약 71억 달러)는 상반기(약 118억)보다 감소하겠으나 연간 흑자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고수준인 약 189억달러에 이를 전망
- 수출증가율(국제수지기준)은 상반기 약 35%에서 하반기 약 15%로 둔화될 전망이며 연간 수출 증가율은 약 27%에 이를 전망
-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상승 등의 여파로 수입 증가율은 상반기와 유사한 약 25%내외를 지속할 전망

4. 금융부문

장기금리 : 향후 경기불투명으로 횡보 예상

- 장기시장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에 5.3%, 하반기에 5.2%로 횡보하며 연평균 5.2%를 나타낼 전망
- 미국 및 세계경제의 호전전망 등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 수출호조세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의 불안요인들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장기시장금리는 횡보할 것으로 전망

원/달러환율 :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160원대에서 하반기에는 평균 1,130원대로 완만하게 하락(원화가치의 상승)할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등 미 달러화 약세 요인과 함께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금년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이 예상되어 달러화 약세 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화의 절상속도는 완만할 듯

〈표 16〉 200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7.0	3.1	5.3	5.5	4.8	4.5	5.0
국내총생산(계절조정)			0.8	0.3	1.0	2.4	
총소비	7.6	-0.5	-0.6	0.8	1.6	2.3	1.0
민간소비	7.9	-1.4	-1.4	0.3	1.1	2.1	0.6
고정자본형성	6.6	3.6	1.8	1.7	0.8	-0.3	0.9
설비투자	7.5	-1.5	-0.3	0.9	3.9	4.2	2.2
건설투자	5.3	7.6	4.1	2.3	-1.3	-3.0	0.1
무형고정자산투자	14.2	-1.3	-3.3	0.5	3.4	3.2	1.1
총수출	13.3	15.7	26.9	27.5	21.3	14.3	22.0
총수입	15.2	9.7	11.8	18.4	15.7	13.4	14.8
생산자 물가	-0.3	2.2	4.2	5.9	5.4	4.5	5.0
소비자 물가	2.8	3.5	3.3	3.4	3.6	3.5	3.5
경상수지(억달러)	53.9	123.2	61.5	56.9	41.0	29.3	188.6
상품수지(억달러)	147.8	221.6	86.1	98.9	71.2	53.5	309.7
수출(억달러)	1,634.1	1,976.4	603.8	633.6	616.6	654.7	2,508.7
증가율 (%)	7.9	20.9	35.6	36.2	25.7	13.8	26.9
수입(억달러)	1,486.4	1,754.8	517.7	534.7	545.4	601.2	2,199.0
증가율 (%)	7.7	18.1	19.6	31.2	29.1	22.2	25.3
서비스, 소득 & 이전(억달러)	-93.8	-98.4	-24.6	-42.0	-30.2	-24.3	-121.1
원/달러환율(평균)	1,251.6	1,191.7	1,172.3	1,161.5	1,140.9	1,121.9	1,149.1
회사채수익률(연%평균)	6.5	5.4	5.5	5.0	5.1	5.3	5.2
실업률(%)	3.1	3.4	3.8	3.4	3.3	3.3	3.4
세계교역량(%)	2.0	4.5					7.5
무역수지(억달러)	103.4	149.9	66.7	78.7	51.4	32.5	229.4
통관수출(억달러)	1,624.7	1,938.2	593.2	623.3	606.7	643.8	2,467.1
증가율 (%)	8.0	19.3	37.8	35.3	26.9	13.2	27.3
통관수입(억달러)	1,521.3	1,788.3	526.5	544.6	555.3	611.3	2,237.7
증가율 (%)	7.8	17.6	19.1	30.6	29.2	22.5	25.1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기부양과 위험요인제거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적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재정정책의 경우 내수지지를 위해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함
 - 추경예산 편성시 단순히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고용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등에 도움을 주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함
-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기업도시 개발 등의 사업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중앙정부가 일관된 지역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지휘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접근법을 지

양하고 지자체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들간에 능동적 자조전략을 모색추진하려는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함

- 이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 중소기업 활성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바람직한 중장기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내수부진으로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총수요압력에 의한 수요견인 (demand pull)형 물가상승이 아니라 유가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비용상승 (cost push)형 물가상승임
 - 반면 경기 침체지속으로 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인상은 가계의 금융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환율정책의 경우,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바탕을 두어 지금보다 더 큰 폭의 환율변동을 용인하여야 함. 조만간 위안화 환율제도 변동 및 평가절상 가능성이 크고 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증폭시킬 것임
 - 따라서 외부여건이 악화되면 지금과 같이 좁은 범위의 환율변동폭이 유지될 수 없을 것임. 외환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외환실수요자들이 환율변동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거시정책에 병행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애로요인 해소 등의 미시정책을 동반한 정책조합으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유도

-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으로 기업의 비용증가와 고용 악화 우려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구조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노동계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은 내수부진 장기화와 함께 고용창출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2. 시장경제체제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불식

- 근래 빠르게 진행된 정치권의 큰 변화와 더불어 정치권의 대중인기영합에 지나치게 기운 나머지 반시장적이며 분배우선적인 정책들이 뿌리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의 우려 증대
- 특히 최근 보편화된 감성적, 선동적, 집단적 의견표출 조류는 냉정한 분석이 앞서야 할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음. 대안 없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 부유세 신설,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조성, 분양가 원가 공개 요구 등이 대표적 예
 - 가장 대표적인 공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사적 노후대비가 충분치 못한 저소득층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될 것임.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촛불시위가 진행되면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전망
 -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부유세 신설은 기존 세제의 개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 대중영합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임. 이런 시도는 무엇보다도 이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지적 나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부유세 신설이 가져올 가장 분명한 결과는 벌써 누더기 모습인 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임

- 기업은 이윤추구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소기의 이윤과 함께 부산물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보통임. 아울러 법인세 납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정부는 사회안정을 위한 사업등에 재원을 사용하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든 만약 기업이 이윤이 있을 때 사회안정기금을 각출하면 반대로 손해가 났을 때 사회에서 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이런 주장은 현존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학 토론동아리 주장으로 적합하나 책임있는 경제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지나치게 단선적임
-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는 실시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임. 건설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자가 실패할 위험부담을 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임. 단순히 주택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지나친 요구임
- 주택업종에 남아있을 사업자가 줄면 당연히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임. 길게는 주택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이런 정책제안들은 소극적으로는 기업을 이윤추구목적의 私的 존재라기보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도구로 보는 왜곡된 기업관과, 더 나아가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부정하려는 반기업정서에 그 근간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이런 관점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표명, 부유세와 관련해서 재경부의 설명자료 공개 등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음

부 록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		US \$	전년동기 대비 (%)				
2001년	3.8	2.2	10,162	4.9	4.9	-0.2	-9.0	6.0
2002년	7.0	7.6	11,493	7.9	6.0	6.6	7.5	5.3
2003년	3.1	4.8	12,646	-1.4	3.7	3.6	-1.5	7.6
2001년 3/4	3.4	0.0		5.6	6.4	-0.5	-14.2	9.6
4/4	4.6	1.3		7.6	6.2	6.2	-1.3	10.7
2002년 1/4	6.5	5.2		9.8	7.6	7.7	3.3	11.0
2/4	7.0	6.2		8.7	7.3	7.3	8.0	6.0
3/4	6.8	7.4		7.8	5.3	2.4	9.1	-2.4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1		0.3	4.0	4.6	1.9	8.0
2/4	2.2	2.6		-1.8	3.7	3.7	-0.6	7.3
3/4	2.4	3.3		-1.9	3.5	2.6	-5.0	7.9
4/4	3.9	8.0		-2.2	3.5	3.6	-2.4	7.4
2004년 1/4	5.3	12.1		-1.4		1.8	-0.3	4.1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D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1년	1,504.4	-12.7	1,411.0	-12.1	134.9	80.4	1,028.2	1,326.1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4.0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5	221.6	123.2	1,553.5	1,197.8
2003년 3월	153.8	16.1	158.7	32.4	-0.3	-10.7	1,238.2	1,252.9
4월	157.3	19.2	147.6	17.5	13.6	-2.6	1,236.2	1,213.1
5월	146.8	3.5	135.2	6.5	16.5	10.8	1,283.4	1,205.3
6월	156.6	21.4	134.3	12.5	27.5	16.0	1,316.6	1,193.1
7월	154.4	15.2	149.0	14.3	14.6	3.5	1,329.1	1,180.0
8월	153.8	10.1	135.4	5.3	22.9	13.0	1,361.9	1,178.5
9월	170.2	22.4	145.3	11.9	30.7	21.1	1,415.4	1,150.2
10월	189.3	25.5	165.4	19.7	29.4	24.4	1,433.2	1,173.3
11월	182.4	20.0	157.6	12.6	28.0	27.7	1,503.4	1,203.6
12월	197.3	31.3	176.2	22.0	26.1	24.5	1,553.5	1,197.8
2004년 1월	189.8	32.5	161.2	11.2	29.8	23.4	1,574.5	1,174.9
2월	191.6	43.6	173.9	25.5	30.0	28.9	1,630.1	1,176.5
3월	211.9	37.8	190.7	20.1	26.3	9.2	1,635.6	1,153.6
4월	215.4	37.0	188.1	27.4	33.8	12.0	1,636.4	1,167.7
5월	209.0	42.4	178.9	32.3			1,665.4	1,165.7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1년	-0.5(-2.5)	4.1(3.2)	3.8	5.8	6.9	9.6	7.04	572.8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3년 3월	3.3(2.3)	4.5(2.4)	3.6(3.1)	9.2	11.9	11.7	5.44	550.8
4월	1.9(1.7)	3.7(2.2)	3.3(3.2)	8.0	10.3	10.2	5.39	585.9
5월	1.0(1.2)	3.2(2.0)	3.2(3.4)	6.9	9.1	9.4	5.26	613.5
6월	1.1(0.7)	3.0(1.8)	3.3(3.6)	7.3	7.9	9.1	5.28	663.2
7월	1.6(0.9)	3.2(1.7)	3.4(3.6)	4.9	7.0	8.7	5.65	703.5
8월	1.9(1.3)	3.0(2.1)	3.3(3.5)	12.7	6.7	7.9	5.87	731.7
9월	2.1(1.7)	3.3(3.0)	3.2(3.5)	5.9	5.8	7.5	5.24	742.3
10월	2.2(2.0)	3.7(3.1)	3.3(3.7)	6.9	3.8	5.9	5.18	756.5
11월	2.4(2.4)	3.4(3.0)	3.4(3.7)	10.8	3.2	5.3	5.53	789.1
12월	3.1(3.1)	3.4(3.4)	3.6(3.5)	3.2	3.0	5.0	5.61	801.2
2004년 1월	3.8(1.4)	3.4(0.6)	3.7(3.3)	-0.3	2.4	4.9	5.67	845.5
2월	4.5(2.6)	3.3(1.1)	3.9(3.3)	11.5	2.6	5.1	5.63	867.5
3월	4.4(3.6)	3.1(2.1)	3.8(3.4)	9.2	2.7	5.3	5.37	875.6
4월	5.5(4.1)	3.3(2.1)	3.4(3.4)		3.1	5.4	5.14	862.8
5월	6.3(4.4)	3.3(2.0)	3.3(3.5)				5.07	798.8

주 : 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평균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계	건설 수주	건설기 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대비(%)										
2001년	0.7	75.3	6.6	2.8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1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1	78.3	-1.3	-5.9	-8.5	-2.3	22.5	18.8	14.8	22.2
2003년 3월	5.0	77.9	-2.2	-5.2	-42.1	5.0	-30.4	20.6	7.9	30.3
4월	2.1	77.7	-2.8	-6.8	-0.7	-2.5	8.1	15.5	6.6	22.3
5월	-0.6	76.3	-1.9	-11.8	3.1	-3.5	32.6	18.5	10.2	24.0
6월	8.6	78.0	-0.4	-4.9	-11.6	7.2	112.7	20.9	10.5	28.1
7월	1.0	74.7	-1.9	-4.3	-12.4	-8.0	68.2	17.1	11.8	21.1
8월	1.6	77.2	-2.6	-9.9	-23.3	-6.3	38.6	23.2	19.8	26.5
9월	7.0	78.9	-2.9	-6.4	18.5	-4.9	39.5	13.7	11.0	16.8
10월	7.8	81.1	-1.6	-6.4	4.7	1.5	16.7	18.0	21.0	17.6
11월	4.9	79.6	-3.7	-9.2	-10.8	-12.0	-14.8	12.2	16.3	11.7
12월	10.9	80.4	-1.2	-2.7	-9.1	-5.0	6.7	24.4	24.5	26.7
2004년 1월	4.6	80.4	-2.3	-8.5	12.9	-3.2	-14.3	6.1	-10.5	16.9
2월	16.6	83.4	2.4	0.8	12.7	0.5	-23.9	5.5	-4.1	11.9
3월	11.6	80.6	0.8	1.0	30.8	-7.7	-3.2	17.0	12.1	19.7
4월	11.3	80.5	0.1	-1.1	18.4	-2.5	-14.6	14.8	9.3	17.7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관1쇄 인쇄/2004년 6월 19일

1관1쇄 발행/2004년 6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최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 원